<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영접할 자를 제대로 영접하면 상상도 못 할 것을 얻고, 운명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뀐다.

2. 영접할 자를 영접을 못 하면 자기가 긴긴 세월 기다린 희망이 날아가 버린다.

3. 영접해야 될 자가 누군지 모르니 누구나 잘 대해 주고, 예수님을 대접하듯 대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대접하듯 하여라.

4. 선생은 평소대로 지극히 약한 자와 보잘 것도 없는 자를 예수님께 배운 대로 대접하고 대해 줬더니, 그가 나를 죽음의 고통에서 이끌어 내주는 밧줄이 되어 주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를 통해 행하셨던 것이다.

5. 선생이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영접하고 잘 대해 주는 것이었다. 그중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꼭 필요한 일을 돕고 내가 모르고 행하는 것을 알려 주어서 알고서 행하게 했다. 이같이 될 줄 몰랐다. 하나님은 어린 자로 인해 계속 합당한 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주고 행할 것을 인도해 주기도 했다.

6. “영접한다. 맞이한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7. 평소에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던 자가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잘 맞게 됐고, 이 시대도 그런 자가 모르는 중에 사명자를 맞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를 잘 알게 되어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기도 했다.

8. 영접을 잘하는 자 치고 잘되지 않은 자가 없다.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한 자로 보고서 그로 인해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다.

9.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영의 몸이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잘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영접이다. 신부되어 천 년 역사를 간다.

10. 하나님과 예수님만 영접할 줄 알고 그가 보낸 자를 영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새 시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11. 사람뿐 아니라 존재물도 귀하게 알고 대하면, 다른 것보다 수십 배 귀한 것도 얻게 된다.

12. 섭리사 안에서도 서로 보통으로만 보지 말고, 귀하게 다시 보고 영접해 주어라.

13. 귀한 자들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영접하고 깊이 보아야 알고, 당장 모르면 후에 알게 된다.

14. 예수님도 한 번 영접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 더 차원 높여 연구하며 영접할 것이 무엇인지 더 알고 영접하여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생각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만나서 주실 것도 주신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더 높이 보고 어떻게 오시는지 깨닫고 영접하여라. 사람을 쓰고 오실 때도 계신다.

16. 겪어 보니 어떤 사람을 영접했을 때 당시에 즉시 돕고 함께하기도 하지만, 오랜 후에 때가 되면 그가 함께해 주고 돕기도 한다. 마치 나무가 커서 집을 지을 때 재목으로 돕듯이 하기도 한다.

17. 어떤 자는 길가에 풀같이 보잘 것도 없는 자인데 긴긴 세월 20년이 넘도록 키우고 잘해 줬더니, 커서 때가 되니 나를 돕고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 당시만 보고 영접하기보다 미래를 보고 영접하여 잘해 주어라.

18. 잘해 준 끝은 좋게 와도, 못 해 준 끝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찬바람만 불어온다.

19. 사람들과 어떻게 하며 사느냐고 하니, 예수님은 “내가 네게 끝까지 변함없이 잘해 주듯이, 너도 그리하며 잘해 주며 살아라.” 하셨다.

20. 어떤 자는 나와 심정이 안 맞아 위치를 옮겨서 뛰게 하려고 하다가 나라고 생각하고 속상해도 수십 번 가르쳐 주며 끝까지 했더니, 선생이 외나무 길을 가는데 양손을 잡아 주어서 안 떨어지고 건너게 해 주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었다.

21. 아브라함은 좋은 소돔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롯을 잘 대접하며 영접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메마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기뻐 살았다. 결국 롯은 하루아침에 그 성이 불타서 집 없는 천사가 되고, 먹을 것도 없이 딸들과 돌아다니는 운명이 되었다. 다시 삶을 황무지에서 시작했다.

22.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큰 것이다. 영접은 잘 맞고, 잘해 주는 것이다.

23. 선생은 거지와 정신이 이상한 자들을 10년 넘게 늘 대접해 주고 영접하며 집에 재워도 주며 살았고, 한때는 대전 인동 다리 밑에서 거지들과도 살았다. 나도 예수님같이 살겠다고 산 것이다.

24.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영접이 아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행하신 것같이 행하면서 살아야, 그 몸이 되어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제는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와 같이 해야 된다.

25. 예수님은 평소 신앙을 보고 그에게 도적같이 오신다. 예비하고 영접하여라.

26. 서로 잘 영접해 주어라. 그로 인해 무엇을 얻기보다, 사랑하기 위해 형제들도 이웃들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 줘야 축복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27.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면, 자기 칭찬으로 상이 끝난다.

28. 항상 주의 이름이나 증거할 자의 이름으로 대하고 영접해야 된다.

29. 육신만 대접하지 말고, 천사도 영들도 대접하고 영접해 주면서 전도하여라.

30. 영접하고 좋아할 때 전도하여라.

31.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다.

32. 어떤 귀한 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영접을 잊지 말아야 잘 맞게 된다.